



제09호 / '16.6.17(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일반해고 하려는 속내 다 보인다

성과평가 통해 배치전환 하겠다는 제시안 내놔

2차 제시안 역시

16일(목) 보쉬에서 열린 9차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이 나왔다. 지난 교섭에서 너무 무성의한 제시안으로 빈축을 샀던 사측은 나름대로 고민했다며 두 번째 제시안을 내놔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측 교섭위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내용이 요구안에 너무 못미치는 것도 모자라, 개악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치전환은 노동탄압 단골 메뉴다!

1. 2016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절차
 - ① 회사는 2016년 개정 단체협약 체결 시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개정된 단체협약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3. 노동자 건강권 요구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개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는다.
 - ② 산재자 재활치료 이후 현장복귀 프로그램은 당해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되,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기간은 각 사 노사협약에 따른다.
4. 일반해고 금지

- ①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해고를 전제로 하는 업무(성과)평가가 아닌 조합원의 적성 파악 및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생산물량 변경, 생산라인 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 및 본인 희망에 따른 배치전환이 필요할 경우, 각 사별 기존 단체협약 사항에 따른다. 단, 불가피하게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부적응과 같은 사유로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과 협의 후 실시하며,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5. 조합활동 보장 : 제시안 없음
 6. 별도 요구안 : 제시안 없음
- (* 밑줄친 부분이 이전 제시안과 달라진 내용)

사측은 계속해서 일반해고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2차 제시안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배치전환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지부 요구안에는 없는 내용을 멋대로 갖다붙였다. 그동안 자본은 배치전환을 통해 노조활동을 탄압해왔다. 노조 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배치전환을 악용하고 있다. 사측 제시안은 배치전환을 통해 노조탄압하고 결국엔 일반해고까지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그대로 보인 것이다. 사측이 올해 교섭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부도 그에 걸맞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9차 교섭 속기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부족이 문제다!

사 : 보쉬에서 두 번째 지부교섭을 진행한다. 그동안 상호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 : 지부교섭 사업장이 6곳밖에 안되지만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이 2,600여명 조합원의 단체협약 등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2,600명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성의있고 실질적인 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겠다.

지난 교섭에서 사용자가 1차 제시안을 냈는데 조합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낸다고 했는데 준비 됐나?

사 : 나름대로 2차 안을 준비했다. 지부 회사들의 규모가 매출로 보면 몇백억부터 몇조원까지 차이가 크다. 지부 요구안 수용능력도 차이가 커서 고민 끝에 안을 마련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

노 : 검토할 시간을 갖고 교섭 속개하자. 정회 요청한다.
<정회>

노 : 제시안 봤는데 조합이 요구했던 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2번 취업규칙 개정 내용 1항을 보면 ‘노력한다’고 돼있다. 노력해보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노력한다는 문구는 빠져야 한다. 2항은 기존 단체협약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각자 단사에서 합의된 각종 합의 내용, 지부 및 중앙교섭 합의안을 안 넣겠다는 건지 문구가 애매하다. 3항은 아예 빠져있다. 이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건강권 요구도 1항은 은폐할 경우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 의지가 없다. 사용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안타깝다. 2항은 각 ‘노사 협의’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요구안은 ‘노사 합의’다. 협의

는 만나서 얘기만 던져도 협의가 된다. 재할 프로그램 전체 기간은 협의만 하고 안하겠다는 얘기로 보인다.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 기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한다.

일반해고 금지 요구안을 이렇게 하면 각사에서 만든 성과평가에 따라 배치전환을 하겠다는 거다. 유성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노동탄압과 연결되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배치전환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도 사용자가 배치전환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하는 사람을 탄압한 사례가 있어서다.

조합활동 요구안은 시간을 드릴테니 안을 준비해달라. 우리가 안을 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오늘 지역 사용자 안은 지부가 요구한 안에 상당히 못미친다. 차기에 안을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사 : 지금 지부장님이 말한 건 충분히 이해한다. 저희도 한시간 반 전에 와서 노력했다. 각 사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 모든 회사가 다 이행할 수 있는 안을 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음 번엔 더 고려해서 제출하겠다.

노 : 우리 요구안은 돈에 관한 건 많지 않다. 의지 문제라고 본다. 돈 문제라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부교섭 의제는 돈에 관련된 것이 많지 않다. 그런 핑계는 안됐으면 좋겠다.

추가로 별도요구안도 고민해달라.

점잖게 의지 부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의지 보다는 지부교섭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내용이 담겨있는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는 올해 지부교섭 순탄치 못하다. 지부장님이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시안 없는 요구안에 대해서 제출해달라. 일반해고는 개악안과 다름없다. 조합 요구안에 근거한 제시안 제출해주길 바란다.